

#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, 수의계약으로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전문가 자문회의(9월 6일)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(9월 11일)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.
  - 이와 관련하여, 9월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다.
- 그동안 정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, 접근·연계교통망 전담팀 (TF)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,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.
  -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입찰조건\*을 변경했지만 재차 유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고를 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.
    - \* (공사기간) 6→7년, (설계기간) 10→12개월, (상위 업체 컨소시움 구성 제한) 2→3개 사 이내
  - 또한,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\*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\*\*를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
    - \* 시설용량 830만명 → 연말 870~890만명 전망 ('24.상반기 429만명 이용)
    - \*\* '30년 1,284만명 → '40년 1,703만명 → '50년 2,000만명 → '65년 2,326만명
  -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하였다.
-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조달청)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(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)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.

|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|
| 담당부서 | 국토교통부        | 책임자 | 팀 장         | 홍복의 (044-201-5207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| 담당자 | 서기관<br>전문위원 | 김대현 (044-201-5208)<br>구현규 (044-201-4319) |